전남도 '모내기 앞당기기' 효과 논란

贊 "한발 앞서 출하 햅쌀 시장 선점"

反 "등숙기 온도 높아 쌀 품질 저하"

〈이삭 여무는 시기〉

6월 초→5월 중순으로 유도 방침

전문가들 "10% 이내 시범 실시를"

전남도가 올해 햅쌀시장 선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벼 조기(早期) 재배'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 조생종의 경우 기존에 6월 초부터 중순까지 마쳤던 모내기를 5월10일에서 20일사이로 앞당기고, 중·만생종 역시 예년보다 25일 가량 빠른 5월10일부터 모내기를 유도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계획대로 모내기 시기가 앞당겨질 경우 수확도 9월 초부터 가능해 타지역 쌀보다 한발 앞선 출하로 햅쌀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또 전체 벼 재배면적의 4.6%에 불과한 조생종을 오는 2010년까지 10%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모내기를 앞당길 경우 ▲태풍과 벼멸구 피해를 줄이고 ▲햅쌀을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으며 ▲모내기와 수확철에 집중된 노동력을 분산할 수 있다는 점 등 잇점이 있다.

여기에 벼를 수확한 뒤 가을감자나 택사 등을 재배하는 이모작이 가능한 점도 장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벼 전문가들은 벼 조기 재배가 햅쌀시장 선점에는 유리하지만 이삭이 여무는 등숙기 온도가 높아 쌀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50~60일가량 지속되는 등숙기에 온도가 높을 경우 영양분(전분)이 쌀알에 저장되지 못하고 벼 자체의 대사과정에 소모돼 미질이 떨어진다는 것.

이때문에 미질이 떨어진 햇쌀 출하량이 늘어날 경우 전남 쌀 전체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전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김한용 교수는 "햅쌀을 일찍 출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조생종 재배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는 어렵다"며 "전남 쌀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가고 있는 만큼 대대적인 조기재배 확대보다 5~10% 이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자체 진행한 연구결과 모내기를 앞당겨도 수량과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매년 야적시위가 벌어지는 등 쌀 판로 확보가 농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농어촌 특별전형 13년 연속 전국 최다 합격

담양 창평고 '대입 명문' 우뚝

6년째 졸업생 전원 4년大 입학 기록도

전남지역의 대표적인 명문 사학으로 자리잡은 담양 창평고의 지난 14일 졸업식 모습.

담양 창평고가 농어촌 특별전형에서 13년 연속 전국 최다 합격생을 배출하는 등 명문 사립고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특히 2008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서울대, 연·고대 등 명문대를 포함해 수도권 소재 대학에 졸업생 절반이 넘는 학생이 합격한 것을 비롯해 6년째 졸업생 전원이 4년제 대학 입학이라는 기록도 세웠다.

17일 창평고에 따르면 올해 졸업생들의 대학입시 합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 2명, 연·고대 31명, 교육대 17명, 의·치·약학계열 9명 등 전체 졸업생 286명의 57.6%인 165명이 서울·경기지역 대학에 합격했다.

이밖에 전남대 42명, 조선대 21명, 사관학교 7명 등 졸업생 전원이 4년제 대학에 합격해 2003학년도 이후 6년 연속 100% 합격이라는 전통을 이어갔다.

더구나 수도권 소재 대학 합격생 165명 가운데 92.2%인 152명이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입학하게 돼 이 분야에서 13년 연속 전국 최다라는 기록도 세웠다.

창평고의 이같은 성과는 잘 짜여진 교과활동과 생활지도, 철저한 중점 추진과제 등을 시행한 덕분으로 풀이되고 있다.

교과활동 분야에서는 10년 이상 진학지도 경험이 있는 교사들의 지도속에 2학년부터 심화 선택과목(수학Ⅱ, 과학Ⅱ)을 실시한 결과 졸업생 대다수가 수능 4등급 이내에 들었다.

또 학년별 논술교재를 제작해 수업을 진행하고 구술·심층면접 준비를 1학년부터 시키는 등 중점 추진과제를 시행한 것도 성과를 거뒀다.

생활지도 측면에서도 재학생의 78.7%인 696명이 기숙사 생활을 통해 규율을 몸에 익히고 휴대폰 소지를 금지하는 등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박형선 교장은 "무엇보다도 우수한 교육환경과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학습 열기로 이어져 좋은 성과를 낸 것 같다"고 말했다.

/담양=장필수기자 bungy@

기차와 자운영 '아름다운 곡성' 기차와 자운영을 배경으로 한 이예호씨의 '아름다운 풍경'이 곡성군이 개최한 전국 사진 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곡성군은 16일부터 18일까지 군민회관에서 전시회를 갖고 이씨의 작품 등 입상작 70점을 선보이고 있다. 〈곡성군 제공〉

강진군 마을환경 개선 '참살기 존 사업' 공모

강진군이 주민과 함께 마을환경이나 이미지를 바꿔나가는 '참살기 존(ZONE) 사업'을 공모한다.

대상 마을은 참살기 존 전국시범지역인 대구면을 제외한 읍·면 마을로, 접수기간은 18일부터 3월 7일까지다. 참살기 존 마을 가꾸기는 주민들이 계획을 직접 수립, 쾌적하고 아름다운 지역공동체를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생활환경 조성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마을은 사업계획서와 함께 주민 1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계획서는 꽃밭·소하천 가꾸기, 담장 허물기, 쉼터·녹지 조성, 취약지 대청소 등 마을의 생활환경을 바꿀 수 있는 내용이면 되고, 모두 10개 마을을 선정해 각 마을당 2천만원씩 총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한편 참살기 존은 참 살기좋다는 지역을 의미하는 말로 살기좋다는 '좋은'과 지역을 뜻하는 영문 'ZONE'을 중의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벌꿀 성분 기능성 치약 일본 수출

나주 가보농산

나주의 벌꿀제조 가공업체가 기능성 치약을 일본에 수출했다.

나주 가보농산㈜은 17일 "최근 일본 오사카에서 항균·항산화 물질인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된 '덴티폴리스 치약'을 연간 10만개(35만달러 어치)이상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오타니사(社)와 맺었다"고 밝혔다.

가보농산 측은 치약 외에 프로폴리스 성분이 든 액상과 캡슐 형태의 또 다른 2가지 제품의 수출도 추진, 시제품을 오타니사에 전달했다.

프로폴리스는 벌이 벌집 보수를 하거나 유해 환경으로부터 여왕벌의 산란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에 바르는 항균·항산화 물질로, 최근 프로폴리스를 이용한 기능성 식·약품이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다.

가보농산 김희성(59)대표는 지난 1995년 목포대와 산학체제를 구축해 10여년간 연구끝에 지난해부터 기능성 치약을 비롯해 아토피 로션, 샴푸, 비누 등 7종의 프로폴리스 제품을 생산하기에 이르렀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완도 '외국어 영어체험 센터' 개원

강사진 캐나다 출신 2명·한국인 3명

1교실 10명…방과후 학교 형태 운영

전남 최초의 '거점 외국어 영어체험 센터'가 완도에 문을 열었다.

완도군은 지난 14일 섬 지역 어린이들의 외국어 교육 향상을 위해 외국인과 함께하는 '외국어 영어체험센터' 개원식을 완도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김장환 전남도교육감과 최찬범 완도교육장을 비롯해 김종식 완도군수, 김부웅 의장, 안동준 완도경찰서장, 학부모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체험 센터는 국·도비와 장보고 장학기금 등 6억 원을 투입해 체험교실 6개, 학생 및 교사 숙소 3개 등 완도 초등학교내 9개의 빈 교실을 리모델링해 문을 열었다.

강사진은 캐나다 출신 남녀 강사 각 1명과 한국인 교사 3명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체험 센터는 '방과후 학교 영어교실' 형태로 운영되며, 1개 교실에 각각 10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게 된다.

수업은 평소에는 주 1회 1박2일, 방학기간 동안에는 4박 5일의 특별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또 원어민 영어교사는 평일 수업이 없는 오전 시간에는 관내 초등학교 영어 수업을 지원하게 된다.

학생들은 해외 출·입국 과정과 호텔이용, 은행·우체국 관련 체험, 공공기관 안내, 서양식 예절 익히기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영어를 배우게 된다.

김종식 군수는 "거점 외국어 체험센터는 전국에서 5개교, 전남에서 처음으로 선정됐다"면서 "장보고장학회의 장학 기금에서 매년 2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최찬범 교육장 부임이후 완도지역 교육여건이 획기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며 "이번 체험센터 개원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완도 학생들에게 영어학습의 기회제공 등 큰 희망을 주게 됐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